

### 전남 교육발전 공헌...전남교육상 수상자 '명예의 전당' 헌액

#### 박석주 목포신흥초 교장 등 5명

전남 교육발전에 공헌한 박석주 목포신흥초등학교 교장과 위경중 전 전남교육청 교육국장 등 5명이 '전남교육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다.

전남도교육청은 14일 제42회 전남교육상 시상식을 갖고 5명의 수상자에게 표창장과 부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올해 수상자는 박석주 목포신흥초등학교 교장, 위경중 전 도교육청 교육국장, 박규백 도교육청 지방서기관, 고진형 6·15 남측위원회 전남본부 상임공동대표, 양승희 목포작가회의 대표이다.

박석주 교장은 교원과 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독서·토론 활성화와 교수·학습 방법 개선, 기초학력 향상 지원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전남 교육연구정보원장 재임 시에는 전문화된 교수·학습 콘텐츠 및 플랫폼 보급에 앞장섰다.

위경중 전 교육국장은 학교방역 강화와 등교수업 확대, 기초학력 책임교육제의 정착, 학교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및 민주적 학교 문화 조성 등 전남의 초·중등 교육 분야 혁신과 발전에 기여했다.



왼쪽부터 위경중 전 전남교육청 국장, 박석주 교장, 김대중 교육감, 조옥현 위원장, 양승희 대표, 박규백 서기관, 고진형 상임대표.

박규백 서기관은 전남교육 재정 효율화에 기여했으며 지역대학과의 교육협력을 통해 학생 미래역량을 키우는 데 노력했다.

정립시민감사제를 운영하는 등 현장 중심의 소통과 공감의 투명한 열린 감사행정을 실현해 전남교육의 청렴성과 신뢰도를 높였다는 평가다.

고진형 상임대표는 전교조 총대 지부장 등을 역임하

며 교육 민주화에 헌신했으며 대안교육 실천, 학교밖 청소년 활동 지원, 통일 교육 등을 실천한 공로가 인정됐다.

고등학교 국어교사인 양승희 대표는 학생들의 글쓰기·독서·토론 교육, 동료 교사들의 교수학습 능력 향상을 비롯해 다문화 가족과 환경 기자단 등 다양한 곳에서 활동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광주대 김동진 총장, 조규성 배출 축구부 격려



광주대학교 김동진 총장이 13일 월드컵 국가대표 조규성을 배출한 축구부를 비롯해 학교 운동부 코치진과 선수들을 찾아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광주대 제공〉

### 호남대, 한국어언어치료학회 우수 논문상 수상

호남대학교 언어치료학과(학과장 유재연) 유재연 교수팀이 최근 '2022 한국언어치료학회(회장 신혜정) 학술대회'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사진>

유재연 교수와 대학원생 박정현(언어치료 전공 석사과정 4학기) 씨는 메타버스 구현발표분야 음성장애 영역에서 '성대접촉 유도 문맥치료 프로그램이 노인성 음성장애 환자의 음성 개선에 미치는 효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논문을 통해 성대 위축과 성대힘이 특징인 노인성 음성장애인에게 성대접촉을 향상시키는 음성치료 방법을 개발 적용한 결과, 음성축진도계를 활용한 음성치료가 노인음성의 음질을 향상시켰고, 어르신들의 음성개선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정현 씨는 "지도교수님과 학술대회에



참가한 것만으로도 좋은 경험이었는데, 우수논문상을 수상하게 돼 매우 기쁘다. 이번 경험을 토대로 훌륭한 언어재활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말했다.

한편, 유재연 교수는 호남대학교 언어치료센터에서 지역 시민을 대상으로 음성컨설팅 및 음성치료활동 재능기부를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 담양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유해환경 개선캠페인



담양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단장 서생협)은 김광훈 사무국장 등 단원들은 지난 6일 담양읍 일대 초·중·고등학교 및 변화가 일대에서 담양군 관계자와 담양청소년지도위원회협의회 합동으로 관내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번 활동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담양읍 변화

가와 국수거리 주변에서 주류, 담배 판매업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에게 주류, 담배 판매행위 금지 및 유해약물 미표시 부착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내용 안내 및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홍보물을 배부하는 방식으로 추진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 전국언론사불자연합회장에

#### 남철우 전 KBS 교향악단 사무국장



전국언론사불자연합회 13대 회장에 남철우(사진) 전 KBS 교향악단 사무국장이 취임한다. 전국언론사불자연합회는 15일 서울 여의도 포교원에서 회장 취임 법회를 봉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남 철우회장은 1996년 KBS에 입사해 홍보실과 대외협력팀 등을 거쳐 KBS교향악단 사무국장과 사장 대행을 지냈으며 KBS 공영미디어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2014년부터 대한불교조계종 미디어위원회 위원을 맡아 불법 흥포(弘布)와 미디어 저문을 하고 있다.

남 회장은 "회원들과 함께 명상 수행하며 부처님 법을 널리 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TV프로그램

1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4 columns: Channel (KBS1, KBS2, MBC, KBC/SBS), Program Name, Time Slot, and Description.

### EBS1

Table with 3 columns: Time Slot, Program Name, and Description.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15일(음 11월 22일 壬寅)

☎ 010-9790-8237

36년생 핵심을 짚어야만 효과가 커진다. 48년생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60년생 실제적 관계가 성립되기 전에는 자제함이 무방하다. 72년생 부담스럽다면 단계를 상향 없이 반복할 수도 있는 것이다. 84년생 쉽지 않은 것을 이기면 꼭꼭 먹어라. 96년생 처음부터 점점해라. 행운의 숫자 : 10, 97

42년생 일부분부터 운락이 드러나리라. 54년생 주관적인 입장을 벗어나서 객관화할 필요가 있다. 66년생 판도를 좌우할 만한 결정적인 방도가 절실하다. 78년생 고생한 만큼 비례한 대가가 주어지리라. 90년생 망심하고 다닌다면 결말에 넘어질 수도 있다. 02년생 반복적인 동세의 연속이므로 새로운 것이 없다. 행운의 숫자 : 09, 63